

일주문



불교신문 사장 취임 및 후원위원회... 12월 4일 올림피아드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신문 사장 취임 및 후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불교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병 스님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종로 라이온스 클럽빌딩 7층 재단교육실에서 주말 자원봉사기초교육을 실시한다. (02.723-5101)



국민추천 정부포상자... 군위 인각사 주지 상인 스님은 행정자치부가 올해 처음 제정한 제1회 '국민추천 정부포상자'에 선정돼 12월 4일 열린 시상식에서 표창 받았다.



극락보전 낙성 및 정안법회... 창녕 무심사 주지 무심 스님은 12월 16일 오후 2시 극락보전 낙성 및 정안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일선 스님까지 평화통일 사주지이 초청 법문한다. (055532-0408)



12월 특강 '놀이치료' 진행... 불교상담개발원장 정덕 스님은 12월 12일 오후 4시 박해숙 심리치료를 초빙, 놀이치료를 주제로 웰레특강을 진행한다. (02.737-8803)



직할교구 신도일원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은 12월 15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직할교구 신도일원연수교육을 실시한다. (02.735-2428)

인사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총무차장 이석심, 총무원 사찰교무팀장 박종학, 총무원 연수원 TFT팀장 김병주, 기획실 기획팀 행정관 고성현, 기획실 홍보팀장 박정규, 기획실 감사국 감사위원 김영주, 기획실 법무실 변호사 정석원, △재무부 기법관운영팀 행정관 함동철, △문화부 문화팀장 심주완, △문화부 문화팀 행정관 윤승환, △호법부 호법팀장 공승관, △교육원 △교육부 교육팀장 전인동, △포교원 △포교부 포교차장 김영일, △포교부 포교팀장 권대식, △포교부 포교팀 행정관 인성호, △포교부 어린이청소년팀장 황철기, △포교부 신도팀장 전창훈, △파견직 △통도사 총무실장 황희기, △승급 △2급 승급 이석심(문화사업단), △3급 승급 김영주(기획실), 권상혁(정보관리팀), △4급 승급 김영환(신도팀), 이종선(총무팀), 이선화(사찰교무팀), △5급 승급 장해경(기획홍보팀), 양원준(교육팀), △대구불교방송 △신인 총괄국장 박호창

사명당기념사업회 신임회장 선임

박권희 前 국회의원... 회장에 박권희 前 국회의원(75·한국 차인연합회장·사진)을 선임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박 회장은 "사명당사의 업적을 전



양하고 사업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언론인으로서 국제신문 정치부장과 대구일보 사장을 역임한 박권을 회장으로 선임당 김

영삼 총재 비서실장을 비롯해 제10, 11, 12대 국회의원, 서울올림픽 조직위 집행위원 등의 요직을 거쳤다. 현재 한국서화기협회 회장, 한국자 동자경주협회 명예회장, 한국차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다. 여수령 기자

“세계인들과 부처님 가르침 나눌 것”

외국인스님으로 첫 포교대상 받은 무진 스님

“포교대상 원력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30여 년 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도움을 준 많은 재가불자들이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보통사람’도 원력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원력을 세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불교 세계화에 앞장 서 온 무진 스님(스위스 법계사·사진)이 외국인스님으로는 처음으로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했다. 조계종 포교원이 선정한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한 무진 스님은 12월 5일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4일 입국했다.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에 큰 감동을 받아 출가를 결심했다. 1976년 스리랑카 스리난다라마야사에서 아난다 마이크리아 스님을 은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고 이곳에서 원명 스님을 만나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83년 한국을 찾은 스님은 1984년 석남사에서 인홍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후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1987년 강화도에 연등국제불교대학을 건립했다. “회관 건립 초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 법당청소부터 재정관리, 운영까지 모두 혼자

자 힘으로 해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수제비나 라면만 끓여 먹어야 하는 힘든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첫 불교영어강좌에 60여 명이 나 등록하는 등 불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이 있었기에 힘든 줄 모르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97년까지 연등국제불교대학에서 불교영어강좌와 참선, 다도 등을 강의했고, 서울국제포교원 등에서 한국불교 알리기에 나섰다. 88 서울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는 국제포교사 제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제포교사양성 교재를 제작하고 교육과정을 만들어 제1기 국제포교사를 배출했다. 1991~1996년에는 러시아를 방문해 현지인들을 위한 수련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 힘쓰던 스님은 2005년 무대를 스위스로 옮겼다. 스위스에 한국 절 법계사를 건립하고 지금껏 한국인 교포와 현지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법계사는 매우 작은 절입니다. 하지만 법계사를 찾는 교포들과 스위스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열정이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는 비로자나국제선원의 자우 스님과 함께 제네바와 라사라스에서 한국문화축제를 개최해 한국불교와 한국문화를 스위스에 알리기



도 했다. 이 밖에 2004년부터는 싱가포르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상담도 펼치고 있다. 전 세계를 누비며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이지만, 정작 스님은 포교를 뜻하는 ‘propag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영어 ‘propagation’에는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는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 다른 세계인들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 (share)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뿐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한 어디든 찾아가 불법(佛法)을 나눌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기자상 시상식 및 불기협 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남배현)는 12월 3일 서울 만복사에서 '불기협 기자상 시상식 및 불기협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본사 공동취재단이 기획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주간불교신문 유응오·신종일 기자가 대상상을, 법보신문사 김현태 기자가 보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 여행동호회 운영자 템플스테이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추홍)은 12월 1~2일 인터넷 여행동호회 운영자들 20여 명을 대상으로 김천 직지사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템플스테이는 지장 스님(초의처명상원장의 지도로 치명상과 자비명상, 음식명상, 소리명상을 비롯해 발우공양과 참선 등으로 진행됐다.

군종교구, 출판간담회 및 후원 약정서 전달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일민)는 12월 5일 국방부 원광사 회의실에서 군법사 4명이 저술한 <인 4백 길을 말한다> 출판간담회 및 출판 수익금 군포교 후원 약정서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책 공동저자인 김갑영, 이정우, 함현준, 김대현 법사 등 4명은 조길조 교구총구 총책의정 법사에게 약정서를 전달했다.

웅진그룹 빙그릇운동 서약기금 전달



웅진그룹(회장 윤석규)은 12월 5일 서울 서초동 정토회관에서 예코파트에 빙그릇 운동 서약기금을 전달했다. 웅진그룹은 이날 빙그릇운동 동참 서약서 3570장과 기금 3570원을 전달했다. 사진 가운데 법륜 스님, 그 왼쪽은 이진 웅진그룹 부회장.

시카다상 2년 연속 한국 시인 수상

4회 수상자 신경림 시인

신경림(72·사진) 시인이 동아시아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웨덴의 권위 있는 문학상 ‘시카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경림 시인의 작품은 아직 스웨덴어로 출판되지 않아 심사위원단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시인에게는 상금 2만크로네(약 290만 원)와 함께 스웨덴의 도자기 예술가 구닐라 스투스트림의 작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1978) 탄생 100주년에 맞춰 2004년 제정된 상으로, 상의 이름은 마르틴손이 1953년 출간한 시집 제목에서 따왔다. 신경림 시인의 작품은 아직 스웨덴어로 출판되지 않아 심사위원단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심사했다. 시인에게는 상금 2만크로네(약 290만 원)와 함께 스웨덴의 도자기 예술가 구닐라 스투스트림의 작품이 주어지며, 시상식은 12월 17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열린다. 김주일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김동건 대표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61·사진)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2월 1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새 위원장에 김동건 대표를 임명했다. 김 신임 위원장은 경북 의성 출신으로 경북 대서법대 부설교과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11회)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지냈다. 현재 학교법인 영남학원 이사장, 참여불교 재가연대 상임대표와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신고재산 등록 및 등록 재산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 승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김주일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02-25-0008-365 예금주:에이치비엠씨

탈종공고

- 사찰명 : 염불암
● 성명 : 안재욱
● 법명 : 법현
● 주소 : 서울 종로구 무악동 산3번지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 이맛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2월 12일

(사)한국불교 법화종 종무원장 법아

무료개방체험

향토와 산야초(야생화)

중생구제의 서원을 세운 소승은 옹정진 지도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가피를 입어 본 도량에 향토찜질방과 좌욕방(산야초 및 야생화 30여종)을 마련하여 심신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과 함께 하고자 무료 체험방을 개방합니다.

또한 도량내에 지하암반중에서 솟는 백반석수는 감로수로서 심신의 건강을 지켜 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홈페이지:검색창에 불토사 라고 쳐주세요!)



약사여래 지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불토사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반곡리 356-3번지
종무소 전화: 033)343-0103

Advertisement for audio equipment rental and installation services. Includes text: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Lists services like '디지털마이크',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다양한 마이크 시스템(에코가능)',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원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사찰 CCTV 설치', and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포장·100% 원불보장'.